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9호 [루체 제25798호] 주제 106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미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비상히 높아진 주체조선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지위에 절집한 미제는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반 익을 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만이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악의 제국인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 도발 행동과 비행한 제재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알당하게 하는 위력한 사상적투기는 천만군민의 두절한 만미제의 식이다. 당시에는 나파들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앞에서 날작 월드미리 구조스럽게 행동하는 데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악의 제국을 정의의 철피로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우리 조국의 위상앞에서 조선족은 세계를 경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당시에는 근로단체 조직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미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천제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본분히 준비시켜야 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인민들속에서 미국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결연히 싸우도록 반미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반미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철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다. 두 철학 단체두쟁의지를 지닌 인민만민이 제국주의자들과 비타협적으로 끝까지 싸우며 나리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을 즐기자며 전진시킬 수 있다. 우리 당은 천만군민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는 것을 유통화주의의 승리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혁명의 네대를마다 반미교양에 거다만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장 수십년째 제국주의 유풍인 미세와 맞서 싸우며 원천원 승리를 떨쳐 훌수할 것을 것은 만미제의식을 만장악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에는 천생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미제의 아수성과 전인성을 체험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새 세대들속에서 만미제의식이 마비되면서 혁명이 중도만만되고 나온다는 온 민족이 미제의 노에 가게 되는 것이다. 새 세대들을 날강도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평의의 보복의지를 지닌 만미제 전인과 협력장을 이고 살수 없는 원쑤이고 기회만 조성되면서 우리 조국땅에 혁명화를 서슴지 않고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것이다.

지난 9월 유엔대에서 미국지배 총유 대표하는 미국대통령이라는 자가 불어태 우리 국가의 『한반도파』에는 전제 미제의 침략적, 폭력적 본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것이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제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의 아주성과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뿐 아니라 몸에 깊이 새겨야 한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입니다. 김정일

한 나라, 한 인민의 역사에는 정신력을 높일 수 있는 비상한 계기들이 있다.

나라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주체 조선의 핵무기를 걸고고 우리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달달하기 위한 미제와 그 주종세력들의 최후 blij 악적인 행동.

이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우리 당이 정화한 자기의 영도력을 다 발휘하여 세기를 이어온 밤마다 걸친 산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확인하였다.

경제 전설과 혁무역 전설의 명예로 선을 들어 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로 혁명을 꽂아 헤기고 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

그의 역적 불변의 혁명적신념의 위대성에 대한 열화 같은 배우으로 퍼를 끌어이며 우리 천만 민은 신념, 그 퀸 품을 더욱 사무치게 칠갑한다.

그렇다. 역사의 반동파들과 판가리 갑작을 떨리며 혁명의 새로운 양기들을 펼쳐나가는 오늘날 신념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중시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한 물 내에 혁명가에게 있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정은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혁명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갖는 가시털불길도, 사선의 전면 깊은 세척과 하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한 번에 먹은 마음 절대로 벗어나는 신념보다 더 퀸 품한 것은 없다.

하나면 혁명적신념의 사상정신적 원천은 무엇인가.

혁명적신념, 이는 자기 영도자에 대한 물질과 정체적인 믿음과 충정은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혁명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갖는 가시털불길도, 사선의 전면 깊은 세척과 하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한 번에 먹은 마음 절대로 벗어나는 신념보다 더 퀸 품한 것은 없다.

그렇다. 역사의 반동파들과 판가리 갑작을 떨리며 혁명의 새로운 양기들을 펼쳐나가는 오늘날 신념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중시된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우

최후 승리는 신념의 강자들의 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우리 혁명이 준엄한 폭풍을 해치며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일관성 있게 계승되어나가는 근본비결은 혁명적신념의 불변성, 계승성이 있습니다.』

신념의 뿌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자로 부터 북대장자에 대한 고난의 행군에 보다 빠져나온 행군이라고 하신 대로 4·5(1958)년을 기준으로 더듬게 된다.

안팎의 원쑤들 특히 양봉을 위하는 종파분자들의 반당반혁명적특징으로 하여 혁명앞에 일대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던 때였다.

그루벌의 어느 날 어느 한 종학교에는 당시 3차례 회의에서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5년계획 전망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인민이 혁리피 조이고 어려운 기회를 놓았던 데까지는 놀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연히 자리에서 차고 일어나서 서어 준현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나 브라포로 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처럼 혁실하면서 당을 풍기고 하기로 있었다. 이런 책동의 일환으로 조직적인 경영이었다.

강사는 장황하게 놀라운 강연의 풍자인즉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는 3년간 전쟁을 겪은 데다가 땅콩 어려도 작기 때문에 술자금과 브라포는 드는 자동차나 브라포로, 선박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과학자도 농민과 수리공들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내는 술렁이었다. 말뿐이 막힌 강사는 이미 땅을 흙치다 우에서 서 말아온 제강이라고, 더 연구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황황히 사라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영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장내는 술렁이었다. 말뿐이 막힌 강사는 이미 땅을 흙치다 우에서 서 말아온 제강이라고, 더 연구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황황히 사라졌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였다.

신념의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간신에 대한 평화한 중요, 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격적 특질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신념의 세계가 오늘 우리 천만의 가슴 더욱 뜨겁게 적어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혁

신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체의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멀찌 해방후는 평온 절경의 그 어려움을 환경 속에서도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기계공업을 창설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신세를 먼저 못할 것이다. …

그로부터 두 달 후 어느 날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죄송한 청탁을 거느리며 대화를 나누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시면 밤에 저녁을 달려들고 있다고, 떡방을 따지면 1:5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조성된 업종한 사람을 이루면 수령님께서는 지금 시면 밤에 저녁을 달려들고 있다.

놈들의 도전에 무자비한 박멸로 대답!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혁명의 전리로 간직하고 성직과 기회로 굳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을 놓내 감동을 금치 않았다.

이번 황일혁명 투사들이 있기에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인민의 전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이번 항일혁명 투사들이 있기에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인민의 전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항일혁명 투쟁은 혁명명단 밟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3·0년간 양성 투쟁을 해오면서 찾은 피의 교훈을 장군님께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시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걸어 올 수 없을 것이다.

가을철 약초재배월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빈틈없는 작전, 완강한 실천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에서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의 일군들이 당제 7차 대회 결정 판정을 위한 투쟁에서 광진적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울여를 절제없는 약초생산성과로 및 내이기 위한 작전과 지원을 벌여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약초를 널리 재배하는 것과 함께 약초재배사업을 공동으로 적극 벌리며 약초자원보호사업을 합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약초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 하여 후대들에게 풍만한 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평생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토록 마음 써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철저히 지켜 심어놓은 약나루들의 사리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판례국의 일군들은 또한 현

판단과 파악의 편법으로 약초재배사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약초재배와 지원조성에 필요한 풍자, 풍족, 약나루모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전진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경인남도에서는 300정보 약초산조성을 비롯한 약초재

재월간에 전개되는 사업들을

산림복구점수와 밀접히 결부

이 거두어들이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여가고 있다.

군총을 끌어 조치통일하고 그들의 의의를 적극 불어넣으

는 한편 시, 군들에 내려가 걸

린 문제들도 적극 물어고 있다.

약초재배와 체취사업은 농

사업과 같아서 적기를 놓치면

그만큼 수확하고 날짜도, 향

부도, 맹어지게 되므로 계절에

와다닥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대중속에 길이 인식시

키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벌

려고 있다.

파마일서기, 파마제우기운

동, 경기교환운동으로 고조되고 해

당 지역의 약초재배와 지원조

성이 필요한 풍자, 풍족, 약나

루모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전진해나가

도록 하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지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판례국에서는 지난 불설약

초재배월간에 모범적인 약초

판례국의 일군들은 대체로 일군들에 대한 책임을 높여 그들

이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

